한겨레 hani.co.kr

프린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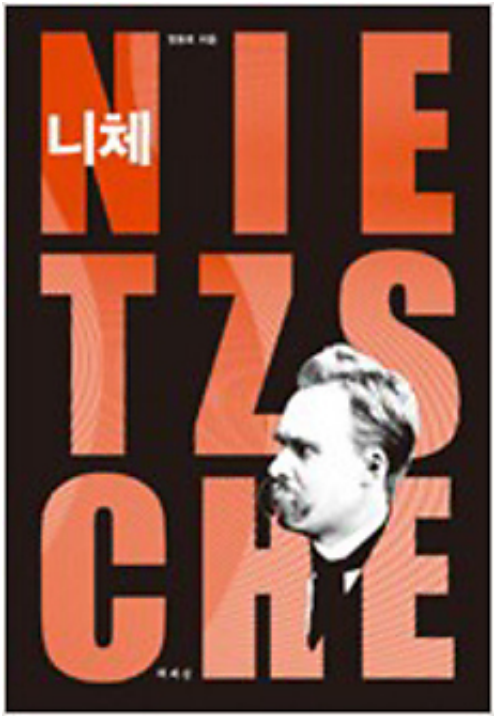
1월 20일 학술·지성 새책

[한겨레]

안선희 기자

곰, 몰락한 왕의 역사

서양 중세사 전문가인 지은이는 유럽의 이교 문화에서 숭배받던 곰이 어떻게 '동물의 왕' 자리를 사자에게 빼앗기게 됐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독교화의 영향으로 중세 유럽에서 서기 1000년을 전후로 나타난 문화와 인식체계의 변화를 다룬다. 미셸 파스투로 지음, 주나미 옮김/오롯·2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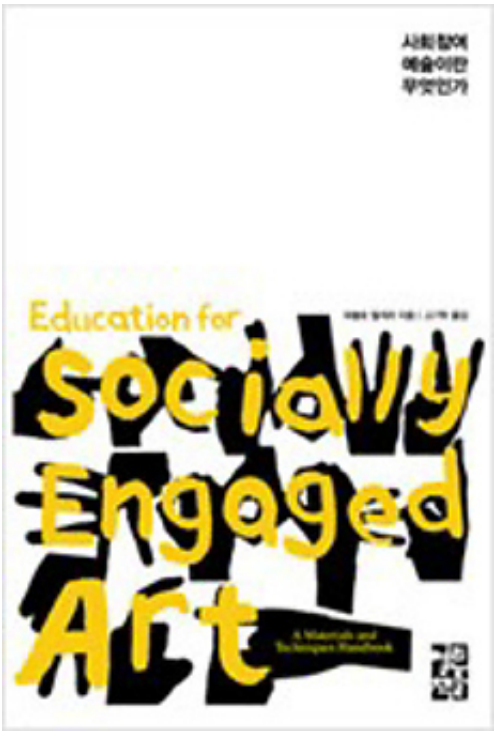


니체

한국 1세대 니체 연구자인 정동호 충북대 명예교수가 쓴 니체 사상 입문서다. 지은이는 "자의적 해석을 최대한 지양하며 니체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자 했다"며, 신의 죽음, 가치의 전도, 허무주의, 자연으로의 복귀, 힘에의 의지, 영원회귀, 운명애, 위버멘쉬 같은 핵심주제들을 하나하나 탐색해나간다. /책세상·3만원.

몰리에르 3부작

17세기 프랑스의 극작가 몰리에르의 대표적 희극 세편, <위선자 타르튀프>, <동 쥐앙, 석상의 만찬>, <인간 혐오자>를 묶었다. 이 세 작품은 '3부작'으로 불릴 만큼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두드러진 작품들로, 당대의 금기에 의문을 던지며 프랑스 근대의식의 탄생을 예고했다. 김익진 옮김/아카넷·1만8000원.



사회참여예술이란 무엇인가

멕시코 출신 시각예술가이자 행위예술가인 지은이는 '사회참여예술'을 '예술가가 직접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교류하며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동의 작품을 만드는 행위예술'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파블로 엘게라 지음, 고기탁 옮김/열린책들·1만1000원.

협조적 노사관계의 행방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펴내는 현대일본생활세계 총서 마지막 권이다. '종신고용'에서 '비정규직 급증'에 이르기까지 일본 노사관계의 변화를 전전기, 패전 직후, 고도성장기, 저성장기, 세계화 시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논문 8편을 묶었다. 임채성 엮음/박문사·1만9000원.

기사등록 : 2014-01-19 오후 07:41:46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하기